

⑦ 연합뉴스 │ < ▷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암; >

Q



뉴스홈 | **최신기사**

檢"盧할말다하고있다"

송고시간 I 2009-04-30 15:33

日本語











성혜미 기자 기자페이지



<盧소환> 브리핑하는 대검 수사기획관

(서울=연합뉴스) 김주성 기자 =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30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에 미련된 기자실에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. 2009.4.30 utzza@yna.co.kr

"대통령께서는".."검사님은" 검찰 "법과 원칙 따라 사건 처리"

(서울=연합뉴스) 성혜미 이한승 기자 =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대검 중수부에 `포괄적 뇌물죄'의 피의자 신분으 로 출석, 검사의 신문에 응하며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"노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말씀을 잘 하시고, 자기 주장도 잘 하고 계시다"며 "지금까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"고 말했다.



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대검청사에 도착해 허영 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7층 중수부장실을 찾아 10분간 이인규 중수부장 및 홍 기획관과 면담을 나누고서 11층 특별조사실로 향했다.

노 전 대통령은 담배를 피운 뒤 오후 1시45분부터 우병우 중수1 과장, 김형욱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문재인 변호사가 배석해 진술을 적극 조력하고 있다.

검찰은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등을 먼저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▲100만 달러 ▲500만 달러 ▲ 12억5천만원 등 기타 사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신문할 계획이 다.







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 등 징계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...

박찬욱, 칸 초청에 "기쁜 봄소식...오래 기립박수 칠...



조사 과정에서 검사는 "대통령께서는.."이라고, 노 전 대통령은 "검사님"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다.

홍 기획관은 "전직 대통령께서 조시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 게 생각한다"며 "사안의 실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noanoa@yna.co.kr



檢, 盧 전 대통령 소환..본격 조사

<盧소환> 두 盧 전 대통령 비교해보니

<盧소환> 선진 "불행한 역사 반복없길"

<盧소환> 민노 "盧, 의혹 모두 밝혀야"

<盧소환> 靑 반응자제.."묵묵히 일만"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9/04/30 15:33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▶ 02:22

[영상]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 [영상] 곡사포 수송췔기 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상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맹"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"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유튜브채널 연압뉴스











sns **f**





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

외국어

계약사/제휴문의

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관련사이트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시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 Yonhannews